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 調查研究

東·西獨接近過程研究

— 基本條約締結以前의 交流 및 協力狀況을 中心으로 —

研究執筆責任 ~~李泰永~~

(略歷)

西獨 Bonn 大學 史學科 卒業(1957)

奧地利 Vienna 大 博士(1961)

東國大學校 教授 및 附設 東歐問題

研究所長 (1963 ~ 1974)

西獨 Köln 大學校 史學科 研究教授(1969.9 ~ 1972.2)

外交研究院 非常任研究委員(1966 ~ 1972.2)

國土統一院 非常任研究委員(1966 ~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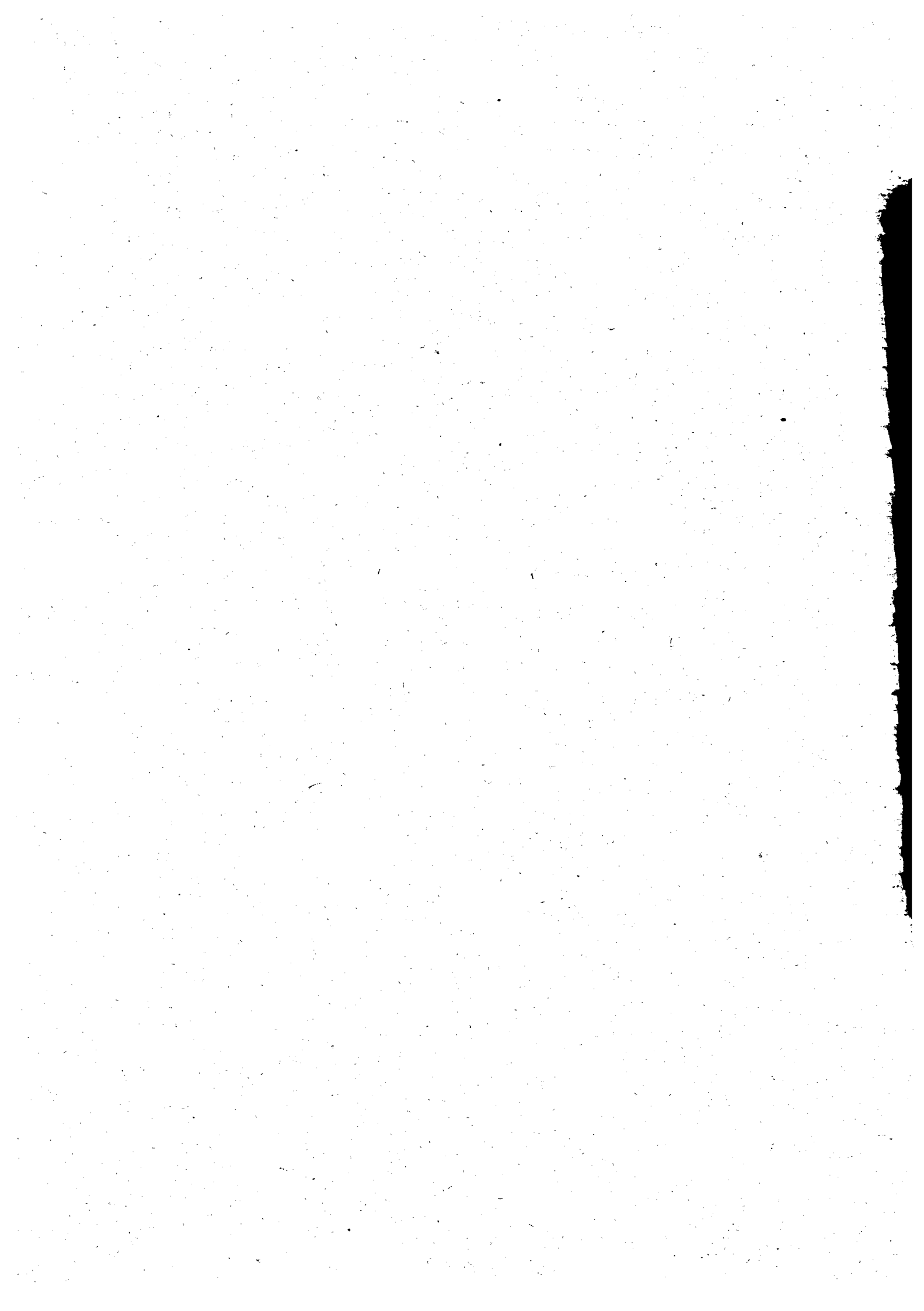
誠信女師大·淑大 講師(1976 ~ 현재)

刊行責任 丁世鉉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序 言	3
2. 占領軍治下の 東·西独 (終戰直後の 狀況)	6
3. 人的往来	15
4. 交 易	24
5. 文化 및 体育交流	31
6. 西方 3 個国 (美·英·仏)의 베를린孤島를 守護키 為한 勞苦	37
7. 全独省 (現 内独關係省)의 統独을 為한 役割	43
8. 東·西独接觸에 비추어 본 우리 南北交流에의 提言	49
※ 参考文献	53



1. 序 言

東·西獨은 分斷初期부터 制限된 狀況에서나마 諸交流(交通, 通信, 文化, 體育, 物資 및 人的交流 등)가 있었다. 政治적으로 對立되어 있던 狀況下에서 그것이 어떻게 可能했던가를 밝혀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要因이 있다. 그 하나는 蘇聯軍 占領地域(지금의 東獨領域)에 位置하고 있는 「베를린孤島」를 기어이 守護하려 했던 西方 3個國의 戰略目的이고, 다른 하나는 東·西獨으로 國土는 分斷되었지만 兩地域의 獨逸인들이 서로가 아주 <남>이 되지 않으려고 憎惡없는 同一民族의 意識과 意志를 堅持했던 點이다.

即 大戰直後 西方 3個國의 占領地域과 蘇聯軍 占領地域의 無秩序한 往來가 法的으로 規制되어 行해지기 시작한 것은 1946年 10月 29日의 占領軍 「管理理事會」(Kontrollrat)의 命令 第63號에 依해서였고, 또 東·西獨間에 「域間交易」(Interzonenhandel)이라는 約定이 締結되어 兩獨間의 物資交流를 法的으로 保障한 것은 1947年 1月 18日의 英·美 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에 締結된 「민덴協定」(Minden-Abkommen)이었다. 即 占領 4個國의 이같은 措置에 이어 人的 往來와 域間交易의 円滑을 爲해서는 始初부터 兩獨의 政府가 間接적으로 關与했지만(特히 西獨側이 그랬음) 體育·文化 및 學術交流를 爲해서는 最初부터 個人 및 民間團體가 主動이 되어 接觸·交流를 試圖했었다.

結局 東·西獨의 交流를 爲해서 始初에는 占領 4個國이 이를 法的으로 保障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兩獨의 關係官署가 各界 分野의

交流增進을 爲해 繼續 接觸했다는 結果가 된다.

그렇다면 末端官吏들의 當該分野 接觸이 그 後 繼續 어떻게 可能했으며 그들 接觸 實務者들과 中央官署와의 行政體系는 어이 되어 있었기에 政治적으로 큰 副作用없이 兩獨間의 交流가 繼續 增進되었느냐는 疑問이 생긴다. 結局 問題의 核은 行政管理 業務處理의 技術인 同時에 兩獨 接觸 實務者들의 서로 <남>이 아니라는 愛族的 意志의 發露이었겠지만, 敵對的인 狀況下에서의 接觸 및 交流를 끈기있게 試圖해야 할 지금의 우리 立場에서는 이 問題가 바로 커다란 研究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筆者는 東·西獨의 接觸 및 交流·協力過程을 檢討하는데 있어서 初期 即 아데나워 首相時代(1949~1963)를 第一 重要視한다. 왜냐하면 저 때는 西獨이 東獨의 國家承認을 不許하고 「單獨代表權」을 내세우며 頑強한 反共政策을 驅使하면서도 한편으론 對東獨 接觸 및 交流를 行했던 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 때의 東·西獨關係가 敵對的인 狀況下에 있었는데도 全獨省 即 現 內獨關係省의 指示에 依해 當該 分野의 末端官吏들이 諸協商을 專担하고 東·西獨間의 諸協力事項을 하나씩 하나씩 技術적으로 規制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筆者는 本稿를 課工함에 있어 그 內訳을 人的交流, 域間交易, 文化 및 體育交流 등의 順으로 追跡·檢討해 보고 그리고 끝으로 東·西獨交流에 비추어서 우리의 南北交流를 爲해 무엇을 提言할 수 있나를 窮理해 보았다.

東·西獨의 關係正常化 過程을 보면 西獨側의 構想은 第1段階가

「承認」이고 第2段階가 暴力拋棄와 外交關係의 樹立이며, 第3段階가 「減軍協商」이며, 마지막 段階인 第4段階가 유럽의 安保体制에 東獨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西獨은 第2段階를 마무리짓기 爲해 兩獨間의 關係正常化 以後 갖가지 協力細則을 規制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第3 및 第4段階의 國家的 企劃實現을 爲해서는 아직도 遼遠한 段階에 있다.

民族 및 國土分斷의 平和的인 超克策으로써 西獨이 左右之間 위와 같은 先例를 만들어 낸데 對해 世界人은 모두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판국이다.

우리의 境遇 南北間의 對峙狀況이 아주 惡化되어 있기는 하지만 單一民族이라는 從屬感情은 東·西獨보다 훨씬 強하게 持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民族 再結合試圖와 統韓政策이 西獨과 꼭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긴 眼目에서 民族分斷의 平和的인 超克策을 세운 西獨의 先例(所謂 獨逸方式)를 우리가 繼續 銳意 注視하고 研究해나갈 必要는 있다.

2. 占領軍治下の 東・西獨 (終戰直後の 狀況)

1945年 5月8日 獨逸軍이 無條件 降伏함으로써 所謂 2次大戰이 끝났다. 그後 1945年 7月17日부터 8月2日에 걸쳐 戰勝 4個國 首腦가 「포츠담」에 모여 포츠담協定の 原則的이고 基本的인 것에 合意했었다. 이에 依하면 "占領軍은 獨逸을 하나의 單一的인 經濟的 統一体로 取扱한다"는 것이었는바¹⁾ 이것이 바로 4個 占領地域의 獨逸人을 交流케 하는 法的인 바탕이었다. '45年 8月30日 마침내 聯合軍의 管理理事會가 構成되어 이가 獨逸의 最高行政權을 移讓받았다. ²⁾ 結局 同聯合軍 管理理事會가 各地域의 軍政을 管轄하기까지 占領地間의 獨逸人 交流는 一部 되어있었으나 이가 無秩序하게 行해졌던 것이다. 即 이 狀態는 마치 우리 나라에 있어서 8·15光復後 '45年 12月 末頃까지 南北間의 交流가 있었고 38線을 넘어 汽車가 오갔던 狀況과 비슷하다.

占領初期에 聯合軍이 獨逸을 行政管理한 內訳을 보면, 4個國 占領軍은 各己 占領地帶의 行政을 爲해 文武의 官吏를 두었으며 末端의 地方行政을 爲해서는 各 地域 占領軍司令部에서 監督官이 派遣되었고 이들의 指揮下에 獨逸人 官吏들이 行政実務에 臨했었다.

註: 1) A. Riklin, Das Berlinproblem, Köln/1964, S. 325 ff.

2) P. Reichelt, Deutsche Chronik 1945 bis 1970, Freudenstadt/1970, Bd., 1., S. 28.

다시 말하면 占領軍의 軍政을 円滑히 하기 위해서 中央에는 独逸의 全般的인 問題를 共同 處理하기 위해 聯合軍의 管理理事會가 設置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同管理理事會는 各己의 政治顧問에 依해 補佐되고 또 每月 3回式 베를린에서 會合을 가졌는바 同會合의 參席者는 占領 4個國의 占領軍 司令官 또는 軍政長官이었다. 그리고 또 同理事會는 12人 以上の 所謂 中央管理委員 (Direct-orates)의 助力를 받았는바 이들은 모두 4大國에 依해 任命되어 交通·財政·賠償·政治 등의 各 分野를 担当 諮問했었다. 그리고 또 同理事會 傘下에는 占領 4個國의 軍政長官 代理로 構成된 所謂 常任調整委員會가 있어 管理理事들의 研究結果와 建議事項 등을 處理했었다. ³⁾

同管理理事會가 1945年에서 1946年에 걸쳐 定期的인 會合을 갖고 많은 占領地 統治令을 發하였는데 이는 나치의 制度的 殘在의 廢止, 「카르텔」의 解体 등을 規定한 것이 大部分이었을 뿐 政治問題에 關한 所謂 積極的인 立法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또 独逸을 하나의 統一된 政治的·經濟的 單位로 認定하지 않으려는 프랑스와 蘇聯의 態度로 말미암아 同管理理事會가 滿場一致의 行動統一을 못했기 때문에 포츠담協定에 내다본 全独逸 中央行政機關의 樹立은 水泡化되고 말았다. 結局 4個國 占領地帶는 各己 實際上的 行政區域이 되어 버렸고 제각기 모두 다른 相異한 占領地 政策을

註: 3) A. Riklin, ebenda, S. 302 f.

施行해 나갔다. 위와 같이 占領 4 個國의 同床異夢 때문에 特別 問題가 된 것은 獨逸人에게 許容해야 할 生産物의 流通問題였다. 即 이 問題는 管理理事會가 오랜 論議 끝에 '46年 봄 一種의 合意를 보았으며 蘇聯이 一方的으로 그 占領地帶內의 生産物을 徵發해 갔기 때문에 4 個國間의 協力이 더욱 어려워졌었다. '46年 5月 3日 美軍政長官 맥나아니 (Joseph T. McNary) 將軍의 代理인 클레이 (Lucius D. Clay) 將軍이 美軍占領地帶로부터 蘇聯軍 占領地帶에로의 賠償物資 移送를 停止시켰는바 이것이 美·蘇間의 不和를 招來했었다. 이러한 協力の 和解가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그 龜裂을 더욱 크게 하자 마침내 4 個 占領地帶는 各각기 特異한 占領統治政策을 追求해 나감으로써 이는 마침내 獨逸 再建의 國家的 基礎가 되지 않고 占領地域別로 國土分斷 및 民族分裂의 「인텐시비티」를 深化해갔다. 4) 아래의 各 項에서 4 個地域의 占領政策은 概觀해 보기로 한다.

먼저 美軍 占領地帶의 事態發展을 보면 '45年 5月 美合同參謀本部命令 第1067号 發表는 獨逸에 대한 美軍政의 一般的인 指針을 밝힌 것이었다. 5) 이 指示書는 헨리·모오겐소 (Henry Morgenthau) 計劃에 따른 強硬平和原則을 밝힌 것으로써 美國人과 獨逸人과의 親善化를 피하고 疾病 또는 社會不安 등을 豫防하되 食

註: 4) A. Riklin, ebenda, S. 83.

5) Marshall Dill Jr., Germany; A Modern History, Michigan Univ. Press/1961, p. 431.

糧配給 및 獨逸經濟에 대한 全面的 統制를 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美占領 當局은 非나치化에 대한 責任을 가장 切感했기 때문에 美軍은 그들이 歴史的으로 늘 Trust 制度에 反對해온 그들의 基本態度를 配慮하여 Cartel 解消計劃을 施行하고 一部の 큰 商社들을 分化시키기도 했다. 結局 美軍은 한 말로 해서 非나치화를 위해 모든 形態의 武裝解除를 까다롭게 監督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美軍은 獨逸의 民主主義를 再建하는데 있어 커다란 熱誠을 보이기도 했다. 例컨대 美軍은 '45年 8月에 이미 諸政党的 復活을 許容했었다. 獨逸의 諸政党的에는 社会民主党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과 基督教民主党 (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共産党 (KPD,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 그리고 自由民主党 (Freie demokratische Partei) 등이 있었는데 保守對 進歩의 雙壁을 이루는 大政党的은 基民党和 社民党的이었으며 自民党的은 知識人和 自由企業人들의 小集團이 核心이 되어 慎重한 政治的 自由主義를 贊成하는 右派 政治團體였다.

그 當時 美占領當局은 選挙의 早速實施를 願했기 때문에 '46年 1月에 이미 첫 地方選挙가 施行되기도 했다. 同 選挙에서 獨逸人들은 높은 投票率을 보였는바 이것은 獨逸人이 民主政治의 復歸를 熱望한다는 証拠였다. 1946年이 지나는 동안 各種 選挙가 施行되었는바 同年 여름에는 3個州에 任命된 首席閣僚들이 各州別로 憲法基礎委員會를 構成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들이 만든 州憲法은 短時日內에 批准되어 1947年 初엔 同 3個州가 共産党

을 除外한 主要政党的 聯立下에 議會政治形態를 갖추었다. 6)

英國軍 占領地帶의 狀況을 보면 이들은 2次大戰 當時 對獨戰
爭에서 美國보다 훨씬 많은 被害와 苦痛을 당했는데도 報復的인 占
領政策을 取하지 않고 獨逸人의 自治를 서두르는 占領政策을 썼다.
英國인들이 이같은 人道的인 占領政策을 施行한 것은 어디까지나
對獨占領政治에 所要되는 經費節減, 即 英國人의 納稅負擔을 減少하
려했기 때문이다. 1945年 7月 英本國에서는 戰後의 첫 選舉를
勞動黨이 勝利함으로써 勞動黨 內閣이 出帆했는데 이들은 同黨의
政策을 어느 程度까지 占領地에도 實施하려 했었다. 即 戰後의 選
舉에서 勞動黨이 勝利한 것은 「國有化 計劃」을 내걸었던 때문이
며 大企業의 社會化라는 勞動黨 政策을 獨逸 占領地에서도 施行코
자 했었다. 7) 그 때문에 英國의 占領地政策은 獨逸人 商社의 規
模를 減少하고 自由企業을 勸獎·育成하려 했던 美國의 占領地 政
策과 相反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年 以後 美國이 獨逸에 있
어서의 經濟的 指導權을 掌握했기 때문에 獨逸에서는 諸自由企業이
繼續 繁昌했는데 이는 美占領軍의 經濟的 主導權 掌握때문만은 아
니고 獨逸 產業發展의 傳統과도 符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英國은 또 저때에 戰後 深刻한 國內經濟難局에 直面해 있었기 때
문에 美國처럼 獨逸에 莫大한 額面의 投資를 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因해서 오히려 때로는 런던 政府가 願치 않는 決定을 내리지

註：6) Reichelt, P.: Deutsche Chronik, ebenda, S. 36.

7) Dill, op. cit. p. 431.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英國은 英國人 納稅者들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將次 獨逸이 競爭相對國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獨逸의 復興을 勸獎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8)

그래서 英軍 占領當局은 最初에 暫定憲法만을 採択하였던 州에 대해 自治를 許容했는바 이를 美軍 占領地보다 緩慢하게 推進해 나갔었다. 이들 州中의 어느 州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樹立된 後까지도 最終 憲法을 採択치 않은채 있기도 했다.

英軍 占領當局은 英本國의 地方自治制 形態中의 一部를 獨逸 占領地에 導入 施行키도 했지만 다른 한편 「比例代表制」만은 回避하려 했었다. 9)

프랑스軍 占領地帶를 보면 同地帶는 본시 英·美 兩國에 配當되었던 占領地를 一部 分割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同地帶는 西獨版圖에서 여러 地域으로 構成된 두개의 三角形地域을 中心으로 이룩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占領期間中 自身の 國內問題에 더 沒頭해야 했기 때문에 占領地에 대한 責務에는 큰 關心을 가질 수가 없었다. 仏軍 占領當局이 볼 때 그들의 占領地帶에서 가장 重要한 地域은 「자아르」(Saar)地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1946년에 一方的으로 프랑스 經濟圈에 統合시켜 버렸다. 그리고 「자아르」地方이

註：8) H. Lehmann, "England und die deutsche Teilung", in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Göttingen/1963, S.203.

9) Dill, op. cit. p.433.

아닌 餘他の 地域은 大國으로서의 國家的 地位를 認定받는 意味에서 다만 이를 占領軍地帶에 넣어두고 獨逸의 再統一을 妨害하기 위한 「바로메터」를 삼고 있었다. 同地帶에서 프랑스가 占領期間中에 이룩해 놓은 것이라면 文化交流의 이름아래 프랑스文化를 移植하려 했다는 點이다. 例컨대 프랑스文化圈의 外廓地帶에 살고있는 獨逸人들을 同化시키기 위해 “善良한 유럽人을 만든다”는 口實下에 마인쓰 (Mainz) 大學을 再開·支援했다는 事實이다. 同大學이 1946年에 再開되어 文芸振興의 이름아래 많은 美術展示, 音樂會 및 諸學術講演 등의 交換에 앞장섰는데 이는 온전히 프랑스 文化政策에 依해 操縱되었던 것이다. 10)

끝으로 蘇聯軍 占領地帶의 事態發展을 보면, 蘇聯人은 同地域을 共產化하겠다는 計劃이 當初부터 徹頭徹尾했었다. 1945年 4月 30日 히틀러가 自殺하던 바로 그날 W. 울브리히트 (W. Ulbricht) 클럽은 모스크바로부터 베를린에 돌아와서 베를린市政에 共產黨 細胞를 組織하기 始作했었다. 모스크바 亡命에서 울브리히트와 함께 돌아온 獨逸共產黨 指導者들은 R. 기프트너 (R. Gyptner), O. 빈처 (O. Winzer), H. 말레 (H. Mahle), G. 군델라하 (G. Gundelach), K. 마론 (K. Maron), W. 쾨페 (Köppe), F. 에르펜벡 (F. Erpen-

註：10) 1477年에 세워진 Mainz大學은 18世紀의 “啓蒙時代” 무렵에 크게 繁昌했었으나 나폴레옹 戰爭時에 라인江의 左岸이 仏軍에 占領당하자 Asc-haffenburg로 옮겨짐으로써 오랫동안 閉鎖狀態에 있다가 1946年에 Mainz에 再開됨.

beck) 및 W. 레온하르트 (W. Leonhard) 등이었다. ¹¹⁾ 이들은 1945年 6月 10日 独逸에 있어서의 蘇聯軍政 (SMAD) 命令 第1号를 내고서 反파쇼적인 諸政党和 勞動組合의 建立을 許容했다. ¹²⁾

본시 蘇聯占領軍은 独逸로부터 莫大한 賠償을 받아낼 心算으로 土地改革을 施行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들이 同占領地帶를 어느 程度까지 共產化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그 當時 그들 自身도 疑問이었다고 한다. ¹³⁾ 蘇聯人은 独逸을 占領했을 때 將次 이를 어떻게 共產化하느냐에 主眼을 두었지 独逸의 非나치化 그 自体는 큰 問題가 아니었다. 그 卑近한 例로써 蘇聯人이 베를린에 進駐하고 베를린市나 그밖의 여러 都市에서 独逸人을 아주 好意的으로 煽動할 때 그들은 共產主義者들의 文句에서 独逸에 關한 듣기좋은 말을 宣傳口號로 내걸었다. 一例를 들면 " 히틀러는 왔다가 간다. 그러나 独逸人和 独逸國은 여전히 남는다 " 라고 했던 스탈린의 말은 宣傳口號로 삼은 點이다. ¹⁴⁾

蘇聯의 이같은 占領地政策에 대해 西方 3個의 占領國은 蘇聯軍政이 非나치化 作業에 疎忽하고 前日의 나치分子들을 數多히 雇傭하고 있는 點을 批判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또 西方 3個國의 占領統治는 軍人을 漸次 民間人으로 代

註 : 11) Siehe, Deutsche Chronik, ebenda, Bd. 1., S. 11.

12) A. Riklin, Das Berlinproblem, ebenda, S. 204.

13) K. Sontheimer u.

W. Bleek, Die DDR, Hamburg/1972, S. 33f.

14) 「統一問題研究」, 第2輯, "独逸" 編 (外交研究院 發行, 1967), p. 73.

替시켜 나갔는바 蘇聯軍 占領地域은 이들보다 훨씬 軍事的인 性格을 繼續 띠고 있었다.

위에 말한 바 있지만 蘇聯占領軍도 1945年 6月부터 이미 政党 活動을 許容하고 共産党的 拏勢를 꾀했었다. 그러나 初期에 있어서 共産党勢는 너무 弱해서 共産党 中心의 行政部署를 도저히 充足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1946年에 이르러 共産主義者와 社会民主主義者를 統合하여 「社会主義 統一党」(SED) 建立을 提議했었다. 이로 말미암아 前社会民主党的 指導者인 O. 그로테블(Otto Grotewohl)이 社会主義 統一党을 主導하였으나 이는 마침내 大部分이 共産党에게 吸收당했고 餘他는 모두 肅清당했었다. 15)

그러나 '46年 10月の 諸 選挙에서 社会主義 統一党은 總投票數의 半數를 達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特히 베를린市의 選挙에서는 旧社民党 得票數의 半도 못얻었으며 基民党보다도 오히려 得票率이 낮았다. 그러나 同社会主義 統一党은 베를린市를 除外한 餘他の 蘇聯軍 占領地帶에서 漸次 그 基盤을 굳혀 나가기 始作했다. 16)

註: 15) Sontheimer u. Bleek, ebenda, S. 38.

16) Sontheimer u. Bleek, ebenda, S. 41.

3. 人 的 往 来

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独逸이 4 個地域으로 分割 占領되었으나 西方 3 個國의 占領地域은 占領軍의 合意에 依해 곧 그들 3 地域 間의 往来가 實施되었다. 그러나 西方 3 個國의 占領地域과 蘇聯軍 占領地域間의 往来는 公的으로 遮斷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無法 狀態下에서 制限된 往来는 그 나름으로 있었다.

그러나 東·西独 地域間에 往来가 法的으로 許容된 것은 '46年 10月 29日 聯合軍의 管理理事會가 처음으로 그들 相互間의 合意에 依해 命令 第 63 號를 發한데에 있다. ¹⁷⁾ 結局 同管理理事會가 独逸人 相互間의 往来를 法の 테두리안에서 制限된 形態나마 許容한 것은 生業에 關係되는 營業的 去來와 離散家族의 再結合이 重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베를린 孤島를 守護하려는 西方 3 個國과 蘇聯間에는 人的往來의 規制를 에워싸고 많은 對立이 있었다. 例컨대 独逸人의 東·西独 來往으로 因해 西方 3 個國과 蘇聯軍政이 對立했던 代表的인 것들을 간추려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西独에서 貨幣改革이 施行되자 1948年 봄 蘇聯은 東·西独 特別히 베를린 往来를 制限 措置했고 ¹⁸⁾ 또 同年 6月 9日에는 西独 에로의 資本流出을 막기 위하여 東独은 東·西独間의 버스運行을

註: 17) Deutsche Chronik, Bd.1., S.53.

18) A. Riklin, ebenda, S.76.

中止시켰으며 同月 24 日에 駐獨 蘇聯軍政庁 (SMAD) 이 베를린을 封鎖하자 西獨 - 베를린間의 往來는 完全히 杜絶되었었다. ¹⁹⁾ 그후 蘇聯軍政은 同年 7 月 行政命令을 내려 西獨으로부터의 訪問客으로 하여금 東獨內에 居住하는 그들의 親戚과 親知들에 대한 人的 狀況을 詳述하는 滯留許可를 要했기 때문에 西獨人의 東獨旅行은 더욱 어렵게 되었었다. 蘇聯이 Bebra-Eisenach 間의 通行을 遮斷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²⁰⁾ 그後 1949 年 5 月 12 日 베를린 封鎖가 解除되어 東·西 베를린의 往來는 再開되었으나 1952 年 5 月 26 日 東獨이 突然히 警戒線을 從前보다 더 徹底히 閉鎖함으로써 그동안 變則的으로나마 아주 制限된 形態에서 施行되었던 東·西獨 旅行은 그나마도 中斷되고 말았다. ²¹⁾ 그리고 또 東獨은 1953 年 2 月 25 日以來 東獨住民들에게 西獨旅行時엔 그들의 身分證을 管轄警察에 寄託케 하고 旅行期間中엔 「臨時證明書」 (Interimausweis, Personalbescheinigung) 를 所持토록 하고 이를 發給하는 措置를 내려 놓았다. ²²⁾

이러한 一聯의 諸往來規制는 結局 西獨에로의 東獨住民 脫出과 資本流出을 豫防하기 위한 까다로운 措馳였는바 東獨은 '53 年 6 月 11 日을 期해 위와 같은 諸措置를 再整備하여 所謂 「새로운 指

註：19) A. Riklin, ebenda, S. 121.

20) A. Riklin, ebenda, S. 123.

21) W. Hubatsch, Deutsche Frage, S. 131.

22) W. Hubatsch, ebenda, S. 131.

針」(Neuer Kurs)을 公告했었다. 그러자 西方側은 同年 12 月
위와 같은 東獨의 諸抑圧 措置를 解制할 것을 強力히 要求했다.
이러한 内外 与件에 東獨이 屈伏하여 東·西獨 往來를 어느 程度
解除함으로써 減少되었던 旅行者의 數가 1952年부터는 다시 늘어
났었다. ²³⁾ 이와 같은 解氷趨勢가 한동안 繼續됨으로써 1954 年엔
東獨의 國營鐵道(Deutsche Reichsbahn)와 西獨의 聯邦鐵道(Bu-
ndesbahn)가 列車 往來의 增車를 合意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54 年 7 月 15 日부터 東·西獨 往來列車의 數는 每日 6 回에서 12
回로 늘어나기도 했다. ²⁴⁾

위와 같이 東·西間에 往來가 頻繁해 지자 '54 年부터 東獨을 脫
出하는 避難民數가 繼續 늘어나므로써 이를 防止하기 위해 東獨은
1957 年 여름 特定 旅行者에 대한 通行을 制限하기 始作했고 또
同年 末頃에는 이 措置를 嚴重 施行했다. 다시 말하면 西獨으로
脫出하는 避難民을 막기 위해 東獨은 '57 年 12 月 11 日 所謂「通
行法 變更에 關한 法」을 制定 公布했었다. 即 旅行届를 提出치
않고 旅行한 者에 대하여는 加重 處罰을 했으며 處罰後엔 通行証마
저도 交付치 않았었다. ²⁵⁾

그러나 위와 같은 東·西獨 往來와 더불어 西獨과 西베를린間의
通行은 포츠담協定以來 全く 保障되어 域間鐵路, 特定한 車道, 制

註: 23) W. Hubatsch, ebenda, S. 131.

24) W. Hubatsch, ebenda, S. 131.

25) SBZ von 1955 ~ 1958, S. 384.

限된 公路 등이 利用되었었다. 그래서 西独에서 西베를린행의 交通은 比較的 摩擦없이 履行되었으나 간혹 警戒線 地域에서는 東独 側의 妨害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西独과 西베를린간의 交通이 혼 히 東独 및 蘇聯에 依해 政治적으로 利用되어 封鎖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西独과 西方 3個国은 베를린 空輸의 非常手段을 써서 西独 - 베를린간의 交通을 繼續 維持했었다. 26)

그러나 東·西独의 接觸過程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1961年 8月 12日 東独側이 突然히 모든 通行路를 遮斷하고 所謂 「베를린障壁」을 構築한 때이다. 東独은 저 때에 警戒線 全域에 대한 軍事的 監視를 一層 強化했고 同月 16日에는 모든 通行証이 無効 임을 宣布했기 때문에 東·西独 相互訪問은 事實上 不可能했었다. 다만 저 때에도 通行禁止를 하지 않았던 極少數의 特定人은 域間의 貨物通運에 關係하는 者와 그리고 東独이 必要로 하는 少數의 學者들이었다. 27)

所謂 「죽엄의 線」(Todesstreifen)이라고 불리웠던 베를린障壁이 構築된 以來 東·西 베를린간의 往來는 事實上 杜絶되었으나 1963年末 東·西 베를린간에 年末休暇의 通行에 關하여 새로운 合意가 이루어지자 東·西 베를린의 通行이 再開되었다. 1963年末 빌리 브란트 베를린 市長과 東独의 副首相이었던 아부슈(Alexan-

註: 26) SBZ von A - Z, S. 218.

27) Deutsche Geschichte in Daten(Herausgegeben vom Institut für Geschichte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Berlin/1969, S. 959.

der Abusch) 間에 東·西 베를린 往來 再開를 위한 書翰이 交換된 後 實務者級에서는 西베를린市 政府의 코르버 (Horst Korber) 參事와 東獨文化省次官 벤트 (Erich Wendt) 사이에 同年 12月 17日 東·西獨의 「通行証協定」이 締結되었었다.²⁸⁾ 그리하여 同年 12月 19日부터 1964年 1月 5日까지 東·西베를린人間的 相互訪問이 許容되었는바 同期間中에 70餘萬名의 西베를린 사람들이 東베를린의 親戚과 親知들을 訪問했었다.²⁹⁾ 그리고 連休 期間中의 相互訪問論議는 그 다음해에도 拳論되어 1964年 9月 24日 「通行証에 關한 새로운 約定」이 締結됨으로써 同年 10月 30日부터 11月 12日까지 571,000名이 오갔고 聖誕節과 新正 (12月 19日부터 1月 3日까지)에는 821,000名의 西베를린市民이 東베를린을 訪問했으며 1965年의 復活節과 聖靈降臨祭 때에는 1,080,000名의 訪問客이 往來했다.³⁰⁾ 그리고 또 同 過程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同約定에 依해서 西베를린 市民은 東베를린에 居住하는 그들 親戚의 生日, 結婚, 重病患, 死亡時엔 東베를린을 訪問할 수 있게 되었던 點이다.³¹⁾ 이와 같은 特別通行期間에 對한 東·西 베를린

註: 28) Vgl. D. Mahnke, Berlin im geteilten Deutschland, München/1973, S. 221.

29) H. Siegler,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1968, Bd. 2., S. 33.

30) D. Mahnke, ebenda, S. 221.

31) Deutsche Politik (Herausgegeben vom Presse und Informationssamt der Bundesregierung), 1964, S. 29.

의 合意에 따라 特別한 連休期間의 訪問旅行은 1965年에도 繼續되어 同年 聖誕節과 新正 連休期間(1965年 12月 18日부터 1966年 1月 2日까지)에 824,000名이 東베를린을 訪問했고 1966年 5月の 聖靈降臨祭 休日期間엔 268,000名이 東베를린에 갔다. ³²⁾

이같은 突然한 訪問旅行이 行해질 때 訪問客들을 에워싼 副作用이 全然 없을 수는 없었다. 同訪問旅行期間中 東獨은 西獨人, 訪問客을 往往 拘束하는 事例가 있었는바 東獨側이 是非하는 對象은 거의가 예전에 東獨에 살다가 西獨으로 넘어간 避難民들이었다.

1965年만해도 이러한 事故가 頻發했기 때문에 西獨은 東獨當局의 非信賴性을 非難하는 한편 一般的인 安全旅行을 圖謀하려는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 東獨人의 西獨旅行에 있어선 東獨은 勞動能力이 없는 者에게만 이를 許容하고 勞動能力이 있는 者의 西獨旅行은 繼續 禁止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東獨當局의 規制에도 例外는 있었다. 即 1964年 現在 東獨은 公務旅行을 要하는 公務員, 經濟·文化·體育交流를 위해 西獨旅行이 必要한 者, 自立經營의 商業人, 自動車 運轉手, 域間交易担当者 그리고 政治問題때문에 西獨側과의 協議를 위해 西獨旅行을 必要로 하는 極少數人에 대해서는 同通行規制에서 除外했었다. ³³⁾ 그리고 勞動能力이 없는者에 대한 西獨旅行의 許容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論述한바 있지만 이

註: 32) Deutsche Politik, 1965, S.20.

33) 「統一問題研究」, “獨逸”編, 前掲書, p.403.

를 좀 더 仔細히 살펴보면 東獨은 1964年 9月 9日 閣僚會議의 布告를 내고서 65歲 以上の 男子와 61歲 以上の 女子, 그리고 勞動不能의 退職者들에게 每年 4週씩 西獨에 居住하는 그들의 親戚을 訪問하도록 許可했었다. 同措置로 因해서 東獨의 西獨訪問客도 적지않게 늘었는데 1965年末의 1年 集計만 보아도 約 190 万에 이르렀다. ³⁴⁾

東·西獨間의 人的往來를 繼續 試圖함에 있어 西獨의 態度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獨逸民族이 國土分斷으로 因해 數多한 離散家族을 낳았기 때문에 이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人道的인 立場에 立脚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人的往來와 交流를 끈질기게 協商하면서도 東獨을 承認하지도 않았고 또한 東獨을 同等한 파트너로 取扱하지도 않았던 것이 特色이다. 아데나워 및 에어하르트 政府의 對東獨政策의 特色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東獨 不承認政策의 흐름은 1966年 키징거-브란트의 聯政時代까지 내려왔다. 1966年 12月에 構成된 키징거-브란트의 聯政도 東獨을 決코 承認하지 않았으며 다만 西獨 自體內에서 基民黨과 社民黨間에 對東獨 交流의 範圍와 方法에 關해서 意見의 差異를 가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東獨은 西獨과의 人的往來를 交涉함에 있어서 끈질기게 東獨政權의 承認을 劃策했으며 國際政治에서 「兩獨論」을 通用시키

註：34) 「統一問題研究」, “獨逸”編, 前掲書, p.403.

러는 手段으로써 이를 利用했었다.

1966年 西独政府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試圖하는 交渉過程에서 積極적인 對東独接觸을 疎나갈 때 西独政府는 同年 7月 베를린市 當局에게 東独과의 通行証 約定을 延長 交渉토록 指示함으로써 베를린市 當局은 同年 10月부터 東独側과 베를린 通行証 交渉을 벌였었다. 即 베를린市 政府의 코르버(Korber) 參事와 東独側의 國務次官 미히아엘·콜(Michael Kohl)이 實務協商을 벌였는데 여기서 M·콜은 西베를린 市議회가 東独의 國家的 尊嚴을 認定하라고 要求했으며 從來의 까다로운 附加條件을 내놓기도 했었다.³⁵⁾ 그러나 西独이 M·콜의 提議를 受諾한다면 東独의 國家的 實在을 認定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西独의 에어하르트(Erhard) 首相은 이를 即刻 拒否했었다. 그리하여 同協商이 決裂됨으로써 1966年의 聖誕節과 新正連休 때는 西베를린 市民의 東베를린 訪問이 實現되지 못했는데 그 當時 東独은 西独을 다음과 같이 非難했었다. "西独이 東独을 어떠한 形態론가 承認하지 않는 限 東·西独間의 關係正常化는 어렵다"라는 것을 同年 12月22日 黨機關紙 Neues Deutschland를 통해 公布했으며 西베를린 市民에 對해 通行証 發給을 中斷하기도 했었다.³⁶⁾ 1963年以來 行해졌던 年末 新正連休中の 東·西 베를린通行은 3年만에 다시 中斷되지 않을 수 없

註：35) H. Siegler, a. a. O., Bd. 2., S. 188.

36) Vgl. H. Siegler, a. a. O., Bd. 2., S. 212.

있는바 東獨側은 저 때에 西베를린 市民들에게 西獨이 全獨逸을 代表하는 唯一한 合法政府가 아니라는 것을 誓約하는 境遇에는 東獨 訪問을 許容하겠다는 奸計를 부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西獨은 如何한 境遇라도 東獨을 決코 承認할 수 없음을 闡明했고 東獨側의 그러한 一方的인 行爲는 法的으로 아무런 効力이 없다는 것을 強硬히 내세웠다.

그러나 키징거 - 브란트의 聯政末期에 이르러 西獨의 國民輿論이 不遠한 將來에 東獨을 어느 形態론가 承認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자 東·西獨의 人的交流는 제법 活潑해졌지만 同交流가 決定的으로 円滑해진 것은 亦是 1970年 東·西獨間의 基本條約 締結以後이다.

單獨代表權을 내세우면서 東獨 不承認政策을 強行했던 西獨政府가 敵對的 狀況下의 東·西獨 協力을 괴해 나갈 때 人的交流를 위해 實務協商을 全担한 것은 全獨省이 아니고 베를린 市政府였다. 同 市政府의 官吏들이 베를린障壁 構築을 前後해서 共産黨과의 까다로운 接觸을 어떻게 展開했는가는 內獨關係省이 發刊한 諸資料에도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4. 交 易 (Interzonenhandel)

獨逸에 있어서의 域間交易은 東·西獨間의 物品交易을 말하며 外國貿易이 아니기 때문에 關稅가 附加되지는 않지만 西獨이 東獨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았으므로 主權國家 相互間의 交易과는 달리 特殊한 形態에서 行해졌다.

東·西獨間에 交易이 行해진 것은 어디까지나 兩獨 相互間에 利益이 되기 때문에 始作되었지만 同交易을 行하게 한 客觀的인 條件이랄까 所謂 對外的인 名分은 「獨逸의 全地域을 하나의 統一된 經濟單一体로 規定한다」라고 한 포츠담協定이 그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域間交易이 行해지는 동안에 1948年 6月 18日 西方 3個國의 占領地域에서 貨幣改革이 斷行되었고 또 同年 6月 24日 蘇聯軍 占領地域인 東獨地域에서도 貨幣改革이 施行됨으로써 各各 別個의 經濟單位體가 形成되었다. 그리하여 1949年부터는 東·西獨이 例前의 Reichs Mark (R.M.) (東·西獨이 多같이 使用했던 單一貨幣) 代身 西獨에서는 Deutsche Mark (D.M.) 를 쓰고 東獨에서는 Reichs Mark 를 씀으로써 完全히 相異한 經濟單位體가 되었다.

그러면 東·西獨間의 域間交易이 어떠한 特殊形態로 行해졌는가를 보자. 西獨은 基民黨 政權時代 (1949.10 ~ 1966.12) 에 出공 對 東獨 不承認政策을 驅使했기 때문에 域間交易에 있어 聯邦政府가 直接 前面에 나서지 않고 西베를린에 設置한 内地交易信託所 (Truehandstelle für den Interzonenhandel) 로 하여금 同事務를 管

掌케 했었다. ³⁷⁾ 그러나 東獨은 이를 對外 經濟省이 直接 管
掌하고 西獨을 外國視했는바 이것은 國際政治에서 2個의 獨逸을 承認시
키기 위한 策略이었다. 結局 域間交易의 施行을 에워싸고 西獨의
對東獨 不承認政策과 東獨의 兩獨論 通用政策이 對決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第3國과의 交易과는 다른 東·西獨 經濟
交流의 限界가 드러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東·西獨이 分斷初期
부터 域間交易을 施行하는 理由는 이가 서로의 利益이 되기 때문
인데 西獨의 立場에서 보면 同交易을 東·西獨 接觸의 媒介體로 利
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해서 東獨의 베를린 通行 制限
問題, 統獨問題 및 兩獨의 諸分野 交流의 政治的 解決을 위한 手
段으로써 所謂 對東獨 「채널」을 삼았었다. 그러나 東獨의 立場
에서 보면 同域間交易은 政治的인 面에서 兩獨論의 通用을 貫徹할
수 있는 方法도 되지만 다른 한편 經濟的인 面에서도 적지않은
利益이 되기 때문에 이를 施行했다. 即 同交易은 EEC가 承認
하고 있는 關稅免除의 特惠를 받을 수 있는 同時에 또 西獨銀行
의 長期 貸付 清算 등으로 말미암아 第3國과의 交易條件보다 훨
씬 利益이 되었다. 그리고 또 西獨으로부터 東獨의 工業化 및 經
濟開發에 必要한 高度화된 投資材 및 化學製品 輸入이 可能했기
때문이다.

이 域間交易의 清算過程을 보면 兩獨의 中央銀行이 이를 全担했

註：37) S.Kupper, Der innerdeutsche Handel, Köln/1972, S.8.

는바 西独의 市場價格에 따라 物品價格은 決定되었고 支払單位는 西独의 「마르크」貨 價值와 一致되는 計算單位(VE. Verrechnungseinheit)를 適用했었다. 1 VE는 西独의 約 1 DM에 該當하는 商品交易이었다. 38)

東·西独間에 域間交易이 始作되어 發展해나간 그 過程을 보면 英·美 占領地域과 蘇聯 占領地域(東·西独間)간의 物品交易을 最初로 許容한 것은 1947年 1月 18日의 「민덴協定」(Minden-Abkommen)이었다. 39) 同約定에 依해 1947年度만 해도 2億 1千萬 라이히스 마르크(RM)에 該當하는 商品交易量이 確定되었고 또 '47年 12月 27日에는 東·西独이 1948年度の 商品交易을 위한 「베를린約定」을 締結하고서 1億 5千萬·RM相當의 商品交易을 確定했었다. 40) 그러나 1948年度の 域間交易은 蘇聯이 베를린 封鎖를 斷行했기 때문에 豫定量이 제대로 交易되지 않았으며 1949年 5月 4日 占領 4個국이 西베를린封鎖의 中止와 域間交易의 再開에 關하여 合意함으로써 다시 이어졌었다.

蘇聯이 베를린封鎖를 中止한 以後 東·西独이 物品交易에 대해 「프랑크푸르트約定」을 締結한 것을 보면 이는 1950年 6月 30日까지 有效하다고 되어 있었으나 實際로는 1951年 5月 30日까지 延長 施行되어 約 3億 VE에 該當하는 商品交易이 行해졌었다. 41) 그

註 : 38) W. Hubatsch, Die deutsche Frage, S. 129.

39) W. Hubatsch, ebenda, S. 129.

40) W. Hubatsch, ebenda, S. 129.

41) W. Hubatsch, ebenda, S. 129.

러나 1949년에 東·西獨의 兩地域에서 貨幣改革이 있었기 때문에 東·西獨은 1951年 2月3日 베를린에서 새로이 域間交易을 約定하고 1億7千萬 VE에 該當하는 商品交易을 確定했었다. 그리고 또 1951年 7月6日에 열린 「第2次 베를린約定」에서는 3億2千6百萬 VE에 該當하는 交易量이 確定되면서 베를린과 西獨間的 通路를 保障한다는 東獨側의 確固한 態度도 明文化되었었다. 42) 이 約定에 따르면 이는 1951年 9月20日부터 發効하되 每年 交易商品의 目錄은 언제나 事전에 準備되어야 하며, 決済는 每年 6月30日을 基準하여 行해지고 清算의 殘金은 現金으로 決済되어야 한다는 施行細則도 包含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952년에는 3億 VE에 該當하는 商品交易이 있었고, 1953년에는 5億3千萬 VE, 1954년에는 8億 VE, 1955년에는 10億 VE, 1956년에는 12億 VE로 交易商品量이 繼續 늘어났다. 43) 그리고 1957년부터는 東·西獨이 商品交易을 重工業商品, 輕工業商品, 生活必需品 등등으로 細分하여 交易하되 各各 같은 計定內에서 清算토록 合意하기도 했다. 例컨대 東獨의 重工業品인 褐炭, 原油 등은 西獨의 重工業品인 鐵, 無煙炭 計定에서 清算토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8년에는 16億7千萬 VE, 1959년에는 約 19億 VE 등으로

註: 42) W. Hubatsch, e b e n d a, S. 129.

43) S. Kupper, Der innerdeutsche Handel, e b e n d a, S. 108.

繼續 域間交易量이 增加되었었다. 44)

그러나 1960年 9月7日 東獨이 베를린에 關한 4個国 協定을 違反하고 東·西베를린의 人的往來를 提案하자 西獨政府는 既往에 締結한 諸約定은 1961年 1月1日까지 有效하다는 論拋를 내세워 서로 맞섬으로써 去來가 不振했기 때문에 그 後 2年間的 去來額은 아주 微微했었다. 1961年 1月 베를린에서 域間交易에 關한 再協商이 있었으나 同年 8月13日 東獨이 베를린障壁을 構築했기 때문에 東·西 베를린 및 베를린과 西獨과의 自由往來가 制限當함으로써 域間交易量도 顯著히 減退되었었다. 例컨대 1960年度의 西獨의 對東獨供給量이 約 10億 VE이었으나 1961년에는 9億 VE以下로 減少되었고(同年의 總交易量은 17億 VE이었음), 1962年度에는 8億 VE(總交易量은 18億 VE)로 減退되었었다. 45)

그러나 위와 같은 兩獨間的 域間交易을 概觀해 보면 同交易에 있어서 劃期的인 時點이 바로 1963年 6月30日이다. 왜냐하면 이 날을 期해서 該간의 交易이 清算 計定되고 同年 7月1日부터 새로이 計定하되 該간에 發生한 計定上의 借貸辺을 0으로 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東獨은 이때부터 物品의 發注와 支払時點을 勘案하여 交易을 嚴格히 統制했으며 1963年 以前의 入超現象을 克服하는 同時에 損失計定을 많은 西獨의 DM現金으로 清算

註: 44) S.Kupper, ebenda, S.108. Herr Kupper entnahm die Statistik aus der Quelle "Der Bundesminister f. Wirtschaft u. Finanzen: BMWF-Tagesnachrichten, Bonn, 9.3.1972"

45) S.Kupper, ebenda, S.108.

하지 않으면 안될 危險性을 謀免했기 때문이다. ⁴⁶⁾ 그후 1963年度의 交易量을 보면 西独의 供給이 9億7百萬 VE인데 反해서 受取는 10億8千萬 VE로써 都合 19億3千5百萬 VE를 記録했으며 1964年度는 西独側 供給이 11億9千3百萬 VE였고 東独側 供給이 11億1千2百萬 VE로써 모두 23億5百萬 VE를 記録했고 1965年度는 東·西独이 各各 12億 VE를 넘게 供給하여 都合 24億 VE를 超過했었다. ⁴⁷⁾

위와 같은 東·西独의 域間交易은 西独의 大聯政期(1966.12 ~ 1969.10)에 더욱 活潑해져서 1966年度는 27億5千7百萬 VE (東独 對外貿易 總額의 10%)를 記録했으나 1967年度에는 25億3千7百5拾萬 VE (東独 對外貿易 總額의 9%)로 약간 減少되었었다. ⁴⁸⁾

西独의 基民党和 社民党的 大聯政이 積極적인 東方政策을 내걸고 兩独 關係改善을 摸索했기 때문에 저 때에 東·西独의 域間交易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으나 東独側이 國際法에 依한 兩独關係 正常化의 先行條件으로써 東独의 承認을 要求했기 때문에 域間交易이 오히려 不振狀態에 놓였었다. 代表的인 例로서 1968年 8月 東·西独間에 經濟關係會談의 開催問題가 抬頭되었을 때 東独의 울브리히트(Ulbricht)는 西独側에게 條件附 全權代表者會談을 提議했었

註：46) S.Kupper, ebenda, S.108.

47) S.Kupper, ebenda, S.108.

48) S.Kupper, ebenda, S.108.

다. 그래서 저 때에 西独의 브란트外相은 兩独의 經濟相會談을 考
慮했었으나 同年 8月21日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 強占」 事態가
發生하자 經濟閣僚會談 開催問題는 無期延期되고 말았다. 49)

結論적으로 보면 域間交易을 통해서 西独은 東独과의 民族 同質
性維持를 持續한 셈이며 東独側에서는 이를 國際政治에서의 「兩独
論」通用政策에 끈질기게 利用함과 同時에 東独의 經濟開發에도 十
分 利用한 셈이다.

註：49)「東·西独資料集」,第2輯, p.3.

5. 文化 및 体育交流

個人 또는 民間團體가 主動이 되어 文化 및 体育交流를 可能케 한 것은 먼저 通信交流였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 및 体育交流를 言及하기에 앞서 兩獨間의 通信狀況을 略述코자 한다.

兩獨間의 通信交流는 1945年의 終戰 直後부터 變則的으로나마 繼續 行해져 왔는바 1961年 8月의 베를린 障壁構築으로 因해 한 동안 中斷되었던 것을 除外하고는 1971年 9月 30日 東·西獨間에 通信協定이 締結되어 通信交流가 本格的으로 活潑해질 때까지 繼續 行해져 왔다. 東·西獨間의 諸交流를 위한 先行條件으로써의 通信交流가, 終戰 直後부터 變則的으로나마 繼續 行해져 왔다는 것은 우리 南·北 分斷의 過去와 現況으로 볼 때 딱 부러운 點이다. 東·西獨間에 이 通信交流가 없었다면 餘他의 交流가 모두 行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東·西獨間에 郵便物 交流가 行해질 때 西獨은 初期에 全國의 各 郵便局에 同 郵便物 取扱에 關한 「注意書」(Merkblätter)를 備置해 두고서 同郵便 利用者를 素養 教育하고 注意를 喚起시켰지만 다른 한편 東獨은 베를린, 라이프치히 등 警戒線 地方의 여러 곳에 郵便物統制所를 設置하고 徹底한 檢閱을 施行했었다.⁵⁰⁾ 學術·文化交流面을 보면 이는 個人 및 民間團體의 接觸 試圖로 因

註：50) 「東·西獨資料集」, 第2輯, p.107.

해 終戰 直後부터 制限된 形態로나마 繼續되어 왔으나 東獨의 社會主義 統一黨(SED)이 漸次 이를 制止하면서부터 文化交流도 加다로와졌다. 그리하여 특히 1957년부터 東·西獨間의 大學과 學術團體間의 交流 및 協力이 큰 制限을 받았는데 그 理由는 1957年을 前後해서 文化人 및 科學者들의 西獨에로의 脫出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1961年 8月 베를린障壁이 構築되고 난 後에는 文化面의 交流가 아주 沈滯狀態에 빠졌었는바 그 理由는 東獨이 文化·學術에 從事하는 西獨의 東獨旅行者들을 한동안 一切 許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東·西獨으로 分斷되어 사는 獨逸人들이 그들의 文化的 紐帶를 持續시키기 위해 個別的으로 끈기있게 努力했으나 東獨側의 「兩獨論」劃策 때문에 同努力은 數多한 妨害를 받아왔다. 그러나 有名한 오케스트라나 演劇團의 相互訪問 公演은 間或 許容되었었다.

1962年 東獨의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괴테」協會 總會, 바하(Bach) 祝祭와 헨델(Händel) 祝祭 등에 西獨側의 文化人 등이 參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⁵¹⁾ 그러나 1963年과 1964年에 들어와서 東獨側의 旅行許可 制限이 緩和되자 獨逸人들의 文化的 活動이 活潑해졌고 또 各 學會間의 接觸도 頻繁해졌다. 이 때의 커다란 文化活動을 헤아려 보면 드레스덴의 管絃樂團과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 Och-

註: 51) S.B.Z. von A-Z., S.266.

ester) 등이 西獨을 訪問하여 演奏하였고 東베를린의 獨逸劇團과 바이마르劇團 등도 西獨의 여러 都市에서 公演을 했었다. 다른 한편 西獨側에서는 西獨의 演芸團인 「힐데하임」과 「막데부르크」劇團(Hildeheim und Magdeburg theater)과 「에센」(Essen)의 「폴크방 발레단」(Folkwang Ballet) 등이 東獨을 訪問하고 上演하기도 했다. 52)

그리고 學術分野에 있어서는 바이마르에서 열린 괴테協會總會와 푸라이베르크에서 열린 山林人會議, 그리고 바이마르에서 열린 第103次 獨逸 自然科學者 및 醫師協會의 會議 등에 東·西獨의 當該分野 人士들이 大學 參席했었고 1965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第12次 國際歷史學大會에 東·西獨의 歷史學者들이 獨逸歷史學會라는 하나의 이름下에 共同으로 參席한 것 등이 意義있는 接觸交流였다. 53)

그리고 또 文芸分野에 있어서 베를린工大가 主催한 冬·夏期 세미나에 東·西獨의 學生들이 共同 參席했고 또 펜클럽의 開催地에 關해서도 東·西獨이 協議했다는 事實 등이 意義있는 일이었으며, 또 라이프치히 春季博覽會에 西獨의 出版人들이 大學 參加했고 또 西獨의 프랑크푸르트에서 開催된 國際博覽會에 東獨과 東베를린의 出版社가 많은 出版物을 展示했던 일 등이 눈에 띄는 交流라고 할 수 있다. 54)

註: 52) Deutsche Politik, 1962, S.370.

53) 「東·西獨資料集」, 第2輯, p.124.

54) Deutsche Politik, 1965, S.22f.

이름으로 交流되었던 体育關係가 1961年 8月 베를린障壁이 構築되자 한동안 痲痺狀態에 들어갔었다. 即 西獨의 獨逸 스포츠聯盟 (DSB, Deutsche Sportsbund)과 獨逸 올림픽委員會 (NOK, Nationale Olympische Komitee)가 東獨의 非人道的인 抑壓政策 (베를린障壁 構築)을 非難하면서 体育交流를 中斷키로 決定했었다. 56) 이로써 1955年 西獨側의 「DSB」와 東獨側의 「DTSB」間에 兩獨 單一팀 構成으로 올림픽競技에 參加할 것을 合意한 以來 兩獨 体育交流는 많은 成果를 올렸으나 이 모든 것이 斷絶되고 만 것이다. 1957年 멜보른大會와 1960年의 로마大會에서는 獨逸의 單一팀이 國土는 分斷되었으나 民族은 分斷되지 않았다는 獨逸人의 民族的 意志를 온 世界에 떨쳤었다.

그러나 1961年의 베를린障壁 構築以後 한동안 中斷되었던 体育交流는 다시 協商을 거쳐 和解됨으로써 1964年의 도쿄大會에도 全獨 單一팀이 參加했었다.

東·西獨의 体育交流를 概觀해 보면 위에 言及한 바와 같이 1964년까지 東·西獨이 協力하긴 했으나 事實은 1958년부터 東獨 体育人의 西獨에로의 脱出이 藉藉했기 때문에 이미 베를린障壁 構築 以前에도 兩獨의 体育交流에 금이 가 있었다. 1958年 東獨은 兩獨의 体育交流를 一種의 「人身去來」라고 非難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 西獨은 베를린障壁 構築以後 聯合旅行公社 (Allied Tra-

註: 56) [東·西獨資料集], 第2輯, p.126.

vel Board)를 통해 東獨의 公式代表者로서 旅行하는 東獨體育關係者들의 西方 旅行을 許容하지 않았기 때문에 東獨은 結局 西方 世界에서 開催되는 諸國際競技에는 參加하지 못했다. 57)

이러한 體育交流의 沈滯가 1966年부터 極히 制限된 形態로나마 再開되었으나 그 成果는 아주 微微한 것이었고 結局 1965年부터 IOC委員會의 決定에 依해 東·西獨이 各各 2팀으로 나뉘어 國際 競技에 參加하게 되었다. 1968年の 멕시코大會에서 西獨은 Deutschland라고 稱號했고 東獨은 Ostdeutschland로 呼稱되어졌던 것이다.

1966年 兩獨의 體育交流가 再開되었을 當時 西獨의 全獨省 베너長官은 "스포츠往來는 政治로부터 分離되어야 한다"라고 主張하고 正常的인 스포츠關係 樹立을 東獨의 體育担当者에게 提議했었으나 西獨의 正常交流 努力과 財政的인 支援에도 不拘하고 東獨側의 無誠意로 말미암아 兩獨間의 體育交流回數가 漸次 減少되어 1970年에는 그 交流回數가 모두 10회에 不過했었다. 58) 結局 兩獨間의 體育交流沈滯도 東獨이 「兩獨論」의 通用이라는 政治目的을 위해 體育交流를 利用했던데에 基因한다.

註：57) S.B.Z.von A-Z., S.451 f.

58) S.B.Z.von A-Z., S.453 f.

6. 西方 3個國의 베를린孤島 守護를 위한 勞苦

戰勝 4 大國의 「베를린 管理」라는 問題가 없었다면 終戰後 東·西獨의 交流는 容易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리 西獨이 同一 民族의 異質化를 막기 위해 對東獨 接觸을 試圖했다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成果를 거두었을까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東獨領域 卽 蘇聯軍 占領地帶안에 孤島처럼 位置한 베를린을 4 大國이 管理해야 했기 때문에 西部 獨逸側에서 東部 獨逸의 警戒線을 넘어 베를린에 이르는 通路가 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戰勝 4 大國의 베를린 管理는 한말로 해서 大戰結果의 所産이다. 1943年 10月 모스크바 外相會議의 決定에 따라 런던에 모였던 美·英·蘇 3個國의 代表가 1944年 9月 12日 英國의 提議를 받아들여 「獨逸 占領地域 및 大베를린 管理에 關한 議定書」를 採択한 것이 4 大國 베를린 管理의 發端이다.⁵⁹⁾ 同議定書에 立脚하여 美·英·蘇 3個國은 베를린을 3個地區로 区分하여 占領했는데 1944年 11月 14日 同議定書가 修正되어 獨逸 管理機構에 關한 協定이 締結됨으로써 1945年 5月 1日을 期해 프랑스가 獨逸 管理機構에 參與하게 되어 4 大國의 베를린 管理가 된 것이다. 結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베를린이 蘇聯軍 占領地域內에 位置했기 때문에 西方 3個國은 그들의 軍隊가 베를린의 그들 管轄地區

註：59) Siehe, Die Welt(dt. Tageszeitung) vom 27. Januar 1967.

에 進駐하기 위해서는 蘇聯軍 占領地域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그후 西方 3個국의 占領地 司令官은 西獨 - 西베를린間的 通路에
關한 通行權을 國際적으로 保障하기 위해 聯合軍의 所謂 管理理事
會 (Kontrollrat) 를 設置했고 베를린과 함부르크, 베를린과 하노
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의 3個 公路를 베를린 通路로 定하
고 同航空路에서의 飛行은 事前通告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全員 一
致의 合意를 보았다. 60) 그리하여 同年 7月 26日 占領 4個国
間에 「獨逸占領 및 大베를린 管理에 關한 議定書의 再修正協定」
이 締結되어 베를린市는 聯合國 司令部에 依한 共同管理下에 놓였
다. 그러나 4大국은 베를린 統治의 原則과 베를린 全地域의 共
同管理問題를 包含한 모든 決定은 4個国 占領司令官의 全員 一致
를 運營原則으로 採択했기 때문에 4大국의 意見이 구구함으로써
베를린 管理는 순조롭지 못했다.

베를린 管理를 에워싼 4大국의 첫 對立은 1946年初 베를린
市政府의 改編時에 抬頭되었었다. 蘇聯 占領軍이 베를린 市政府를
掌握하기 위하여 베를린에서 確固한 基盤을 가지고 있는 社民黨
(SPD) 과 共産黨을 強制的으로 統合해서 社會主義 統一黨 (SED)
을 結成하려고 하자 西方 3個국은 이 統合을 頑強히 拒否하는
社民黨을 支援했던 것이다. 1946年 10月 베를린市 全域에 걸친

註 : 60) A. Riklin, Das Berlinproblem, ebenda, S. 80.

선거에서 共産黨이 敗北하자(社民黨 49%, 基民黨 22%, 社會主義統一黨 20%, 自民黨 9%) 蘇聯은 베를린 統治機關에서 社民黨出身의 로이타(Ernst Reuter)市長 就任을 18個月이나 拒否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4大國 管理는 難航에 빠졌다. 61)

終戰後 占領 4個國의 對獨政策은 獨逸社會의 非나치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한동안 頑強한 占領政策을 驅使했으나 東·西間에 冷戰體制가 構築되어 유럽이 共産威脅에 直面하자 西方 3個國의 對獨政策이 柔軟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西方側은 「마샬計劃」에 對한 西獨의 受援體制를 整備하기 위해 1948年 1月 1日 美·英 占領地域을 經濟적으로 統合하고 同年 2月 3日에는 프랑스 地域도 包含 統合했으며 또 西獨만의 單獨 通貨改革도 試圖했었다.

그러나 蘇聯은 西方側의 이러한 計劃이 1945年 8月 2日의 「포츠담 宣言」 第2部 B 第14項에 違背된다고 抗議했었다. 即 同 宣言의 第14項이란 “占領期間中 獨逸을 單一經濟體로 取扱한다” 62)는 것인데 西方側이 同規定을 違反했기 때문에 聯合國의 管理理事會가 그 機能을 喪失한 것이라 断定하고 1948年 3月 20日 蘇聯은 同理事會를 脫退했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蘇聯 占領當局의 베를린에 對한 交通規制가 加一層 嚴格해졌고 나아가서는 同年 6月 24日을 期해 西베를린에 對한 全面的인 陸上交通을 封

註: 61) A. Riklin, ebenda, S. 116.

62) A. Riklin, ebenda, S. 258 ff.

鎖했었다. ⁶³⁾ 그러자 西方側도 그에 대한 對抗措処로써 東베를
 린에 대한 物資供給을 中斷했지만 西베를린에로의 全面封鎖는 베를
 린을 바로 孤島化하기 때문에 約 1万名の 西方側 駐屯軍과 約
 200万의 西베를린 市民이 生存의 威脅을 받게 되었었다. 그래서
 美軍 最高司令部는 緊急措置의 一環에서 「베를린 空輸」를 始作하
 는 한편 西方 3個國의 駐모스크바 外交網을 통해 政治協商을 벌
 렸었다. 그 結果 同年 8月30日 双方은 合意했는데 西獨의 마르
 크貨만이 아니고 蘇聯軍 占領地域의 通貨도 東·西베를린에 流通케
 하는 代身 베를린에 대한 모든 交通制限을 解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同合意 內容이 實務者線에서 具體的인 方案을 찾지 못하
 자 베를린 問題는 同年 9月 유엔의 安保理事會에까지 提訴되었으
 나 여기에서도 決裂되었었다. ⁶⁴⁾ 即 蘇聯은 東·西라는 強壓的인
 手段으로 西方側을 屈伏시켜 西베를린을 기어이 蘇聯軍 占領地區에
 編入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에 屈하지 않은 西方側의 베를린 死守
 決意와 對立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東·西方側의 對立은 結局
 베를린 空輸의 成敗에 歸着되었는데 同空輸는 마침내 蘇聯의 豫想
 을 完全히 뒤집고 말았다. 即 西方側은 1948年 6月24日에서
 1949年 10月6日까지의 封鎖期間中 西베를린에 所在하는 3個 空
 港을 利用하여 美·英의 輸送機가 長長 27万回를 飛行하여 總量

註：63)「統一問題研究」"獨逸編", 前掲書, p.371.

64)「統一問題研究」"獨逸編", 前掲書, p.372.

2百10餘万吨의 物資를 輸送함으로써 所謂 베를린 空輸를 完全히 成功시켰었다. ⁶⁵⁾ 西方側의 이와 같은 処事는 베를린 空輸를 위해 아니 200万 베를린 市民의 生存을 위해 千辛万苦를 다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東獨에로의 禁輸措置가 東獨의 經濟事情을 惡化시켰기 때문에 蘇聯의 当初 計略을 挫折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은 1949年 2月15日부터 5月4日에 걸쳐 유엔에서 있는 「제섭」(Philip C. Jessup)과 「말리크」(Jakova. Malik) 會談에서 「獨逸에 關한 諸問題와 베를린 通貨問題를 包含한 베를린 事態에서 發生될 諸問題의 討議를 위한 外相會議」를 開催한다는 條件下에 베를린 封鎖解除에 同意했었다. ⁶⁶⁾

그러나 4 大國 共同管理下에 있었던 베를린은 結果적으로 이 베를린 封鎖期間을 통해서 마침내 東·西베를린으로 行政上 分断되고 말았다. 1948年 7月29日 베를린 市議會가 蘇聯軍의 封鎖行爲를 非難하는 決意文을 採択하자 社會主義 統一黨(東獨의 共產黨)이 同年 9月6日 그에 대한 報復措置로써 市庁舍를 占拠했기 때문에 베를린 市議會는 英軍 占領地區로 移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蘇聯軍 占領地區의 「市代表者會議」(社會主義 統一黨 代表者 會議)는 正當히 選出된 市政府의 廢止를 主張하면서 「에베르트」(Fritz Ebert)를 市長으로 選出하고 나왔기 때문에 蘇

註：65) 「統一問題研究」 " 獨逸編 ", 前掲書, p.372.

66) A. Riklin, Das Berlinproblem, S.135.

聯 占領当局도 이를 默認하고 「臨時 民主主義 市政府」를 樹立시켰었다. 67)

이에 대하여 西方側은 西베를린에서 行해진 12月5日의 選舉結果에 따라 로이터市長을 首班으로 하는 새로운 市政府를 承認했고 이어서 12月21日에는 聯合國 統治機關(管理理事会)을 美国, 英国, 프랑스 3個国 軍司令官으로 再編했었다.

이와 같은 東·西베를린에서의 事態發展은 法的으로 4大國 管理를 停止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베를린은 하여튼 이를 契機로 行政上 兩分되어 2個의 베를린 面貌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結論적으로 보면 西方 3個國의 베를린 孤島守護決議는 東·西 冷戰體制 構築이 가져온 것이었지만 저들이 베를린을 守護하기 위해 아니 西유럽의 共產化를 막기 위해 4大國의 베를린 管理協定을 바탕으로 西獨-베를린間의 通路 및 諸交流를 앞장서서 열어놓은 것이 東·西獨의 諸交流를 先導한 것이었다.

註: 67) A. Riklin, ebenda, S. 156.

7. 全独省(現 内独關係省)의 統独을 위한 役割

全独省은 1949年 西独政府가 樹立되어 出帆할 때 1個 部処로 서 發足되었다. 當時의 國民輿論은 새 政府가 果然 저러한 部処를 들 必要가 있느냐는 것이었고 또 与·野党도 거의 共通된 見解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필코 超克되어야 할 民族分斷이기에 아데나워 首相이 固執하여 이 部処가 發足했었다. 同部処 設立의 目的은 民族統一에로의 政治的 意志를 形成시키자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全独省의 課業은 独逸의 再統一을 準備하되 特히 警戒線 地域의 同胞들이 威脅당하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全独省은 베를린의 特別한 位置를 勘案하여 베를린市에 同部処의 베를린局을 두었었다.⁶⁸⁾ 그리하여 베를린局으로 하여금 警戒線 地域의 同胞를 保護하되 警戒線 밖 即, 蘇聯軍 占領地域의 民族保護까지도 말도록 했었다. 即 全独省의 課業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그 하나는 自由속에서 独逸의 再統一을 實現해 보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不自由속에서의 独逸統一을 沮止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設立目的을 가지고 發足되었던 全独省은 예전에 없던 部署이기 때문에 業務着手 自体가 漠然했을 뿐더러 經驗

註: 68) F. Thedieck, "Das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in Bayerische Verwaltungsblätter, Heft 11/1961, S. 325~329.
Franz Thedieck은 10餘年間 아데나워 內閣의 全独省次官이었음.

없는 적은 人員과 豫算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도 全独省이 草創期에 그 課業으로 定한 것은 두가지였다. 그 하나는 独逸統一을 國際政治的인 問題로 내다보고 蘇聯軍 占領地域 軍備拡張에 비해 西独은 어떠한 防衛力을 가졌는가를 檢討하는 한편 外務省 및 內務省과의 緊密한 協力下에 于先 폴란드 및 蘇聯에 編入된 옛 東部独逸이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려고 試圖한 点이다. 6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들의 統獨問題를 어디까지나 独逸人 相互間의 問題로 看做하고 統一을 위해 各界 国民層에서 提議되는 諸問題를 檢討하기도 하였다. 70) 이를 위해 全独省은 먼저 蘇聯軍 占領地域의 立法過程과 行政의 實際 등을 예의 注視하여 全独省 業務의 基底를 삼았다. 그리고 또 베를린 狀況에 대한 法的인, 政治的인 諸問題를 注視하고 그에 대한 對策樹立을 主任務로 삼기도 했다. 71) 그러나 이미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從來에 없었던 新設部處로써 各 州政府에도 全独省의 所管事務를 專担하는 行政組織이 全然 없었기 때문에 草創期의 業務開拓이 極히 어려웠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人的貧困, 實務的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全独省이 또 着案한 것은 蘇聯軍 占領地帶의 內政 및 財務行政을 法治國家의 行政法과

註：69) F.Thedieck, ebenda.

70) F.Thedieck, ebenda.

71) F.Thedieck, ebenda.

行政實際라는 観点에서 에의 檢討하고 또 이를 西獨의 當該 領域과 比較하는 作業이었다. 72) 그리고 또 東獨地域의 經濟法과 社會法을 注視하고서 西獨의 聯邦政府가 全獨的인 問題를 立法하는 데 있어서는 東部地域의 現況을 勘案하여 措処하도록 提議하기도 했다. 73) 다시 말하면 西獨 聯邦政府의 內務 및 財務行政 등을 立法化하는데 있어 언제나 全獨的인 觀点を 配慮하도록 注意를 喚起시켰다. 그리고 특히 全獨省은 政府樹立以前의 西獨-베를린, 西獨-東獨間의 人的往來를 徹底히 研究하고서 政府樹立以後엔 全獨省이 主動이 되어 內獨往來를 위해 모든 것을 周旋했었다. 예컨대 身分證의 簡素化, 通行證의 廢止, 外國人 및 獨逸人을 위한 東獨旅行注意書의 發刊, 檢問의 迅速化 등등을 推進한 것이 全獨省이었다. 74) 이같은 東·西獨 來往을 위해서 全獨省은 兩獨 當該官署의 法律的 保護를 促求하고 또 諸協商을 위한 實務關与者의 身辺保護에도 徹底를 期했다. 75)

둘째로 위와 같은 內獨 來往에서 派生되는 諸問題에 法律的인 措処를 行한 것 以外에 全獨省이 重要한 課業으로 내세웠던 것은 蘇聯軍 占領地域에 施行된 經濟, 交通, 農業, 社會 및 勞動政策 領域에 關한 觀察과 分析이었다. 76) 그러나 域間交易과 東·西貿

註: 72) F. Thedieck, ebenda.

73) F. Thedieck, ebenda.

74) F. Thedieck, ebenda.

75) F. Thedieck, ebenda.

76) F. Thedieck, ebenda.

易을 위해서는 經濟省과 獨逸聯邦銀行(中央銀行)과도 많은 協力을 했었다. 그리고 蘇聯軍 占領地域의 經濟狀況을 알기 위해서 東獨이 東블럭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으며 또 東獨이 東블럭의 經濟體制에 어떻게 휩쓸리고 있는가 등을 注視하기도 했다. 77)

그리고 또 他意에 依한 國土分斷이 文化領域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나를 檢討했고 또 어떻게 하면 東獨의 住民들을 西獨의 文化發展에 積極 參與시킬 수 있나도 研究했다. 相互訪問, 學術會議, 講演會, 專門職人들의 會合 등을 周旋한 것이 모두 獨逸文化의 正統성을 管掌하기 위한데서 行해진 것이다. 78) 그리고 또 全獨省은 蘇聯軍 占領地域에 있어서의 獨逸人의 固有한 民俗을 維持시키는데도 心血을 기울였다. 例컨대 西獨으로 避難해온 避難民들을 東洋人들끼리 會合을 갖게하고 그 고장의 民俗을 繼承 維持토록 그들의 諸行事を 뒷받침하기도 했다. 79)

그리고 또 全獨省은 東獨의 靑少年問題, 教育問題, 婦女問題, 家族制度, 大學生 및 教員問題 등을 把握하기 위해서 蘇聯軍 占領地域의 社會相을 觀察하고 分析하기도 했다. 80) 이 問題를 위해서는 西部獨逸 各 州政府의 當該 官署와 協力했으며 때로는 이를 專門家에 委囑하여 研究시키기도 했다.

註: 77) F.The dieck, ebenda.

78) F.The dieck, ebenda.

79) F.The dieck, ebenda.

80) F.The dieck, ebenda.

그리고 또 分断狀況下에서 東·西獨間的 離散家族이 交通하기 위해서는 通信交流가 先決問題였기에 全獨省은 親戚, 親旧, 예전의 이웃 및 餘他の 親知들과 交流하도록 通信交流의 円滑을 위해 努力하기도 했다. 1961年 8月13日 베를린障壁이 構築되었는바 그때까진 親族訪問이 可能했었으나 同交流를 그 以後에도 可能케 하기 위해 全獨省은 온갖 努力을 다했었다. 베를린障壁 構築以前에 東獨人으로서 西獨旅行을 했던 77%는 西獨側의 諸般 도움을 받았는바 이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도록 만들었던 것도 亦是 全獨省이었다. 81) 그리고 또 베를린의 特別狀況을 勘案하여 베를린에 全獨省의 一個 局을 新設했던 全獨省은 東獨으로부터의 旅行者에 대해서 모든 便宜를 提供했다. 이때에 内外国人 할것없이 每年約 10万名이 全獨的인 問題에 関한 講演을 듣도록 周旋했던 것이다. 82)

그리고 양쪽의 獨逸人으로 하여금 東獨이나 西獨의 發展에 대해 正確한 인포메이션을 갖도록 努力한 것도 亦是 全獨省이다. 그 理由는 兩便의 獨逸人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從屬感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全獨省은 兩便의 獨逸人들이 하나의 同一民族이라는 從屬性을 갖게하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나 또는 靑少年의 政治教育을 施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分断狀況下에서 全獨省이 特히 努力한 것은 獨逸의 再統一委

註: 81) F.The dieck, ebenda.

82) F.The dieck, ebenda.

員會를 통해 東獨의 社會·經濟狀況을 西獨社會의 發展狀況에 比較시켜 政治訓練을 시켰던 點이다. 83)

그 以外에 全獨省은 또한 1953年에 「本」에다 「全獨問題 文書庫」를 設立하고 分斷狀況下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를 整理해 두었다. 이 整理過程에서 8年間的 勞苦를 쌓은 同文書庫는 37萬枚의 카드를 整理하였고 13萬卷의 圖書와 300餘種의 學術誌를 蒐集했다. 위에 말한 37萬枚의 카드속에는 工業部面에서 9,000個의 經營業所를 整理해 두었고, 73,000名에 대한 東獨의 人的狀況을 整理해 둔 것이 特異할만한 일이다. 84)

結論적으로 보면 敵對的인 東·西獨 狀況에 있던 저 時期에 西獨의 全獨省은 統獨을 위한 中·長期的 研究를 不斷하게 遂行했다는 것이 事實으로써 立証된다.

全獨省의 이러한 役割이 末端 地方官署의 官吏들에게 對東獨 接觸에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하도록 指示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으나 敵對的인 東·西獨 狀況下에서 同新設 部處가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한 民族의 再結合을 위해 끊임없는 努力을 다했던 것만은 잘 믿어진다.

註: 83) F.Thedieck, ebenda.

84) F.Thedieck, ebenda.

8. 東·西獨 接觸에 비추어 본 우리 南北交流에의 提言

西獨이 東獨을 接觸하는데 있어선 두가지 側面에서 우리의 南北關係보다 有利했다. 그 하나는 占領 4個國中 西方 3個國이 베를린 孤島를 守護할려는 戰略目的에서 西獨-베를린間의 通路를 열어 놓았다는 点이며, 다른 하나는 東·西獨으로 國土는 分斷되었지만 兩地域에 居住하는 獨逸人들 서로가 아주 <남>이 되지 않으려는 所謂 統一獨逸에로의 政治的 意志를 가졌었다는 点이다. 獨逸人들이 지금도 亦是 하나의 獨逸民族이고자 하느냐 하는 問題는 現時點에선 確實한 對答을 할 수 없는 判국이 되었지만 東·西獨間에 基本條約이 締結되는 時期까지, 特히 大戰直後와 1950年代에는 兩獨의 獨逸人들이 하나의 獨逸民族이고자 했던 것만은 事實이다.

이러한 內外條件 以外에 東·西獨의 交流를 위해 有利했던 또 하나의 要因을 든다면 그것은 兩獨이 雙方의 政府的 次元에서도 交流 및 協力을 願했었다는 点이다. 即 西獨側에서는 域間交易(Interzonenhandel) 같은 交流를 통해서 베를린의 往來 制限問題, 統獨問題 등등을 政治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對東獨 「채널」을 갖자는 것이었고, 또 東獨側으로서는 西獨의 對東獨 孤立化政策을 避하고 國際政治에서 「兩獨論」을 通用시키기 위해서는 東·西獨의 交流를 繼續 政府的 次元에서의 協商條件으로 물고 가야한다는 計略이 있었다. 그리고 經濟的인 面에서도 域間交易은 유럽經濟共同体(EEC)가 承認하고 있는 關稅免除의 惠沢을 받기에 第3國과의

交易보다도 實利가 크고 또 同交流를 통해서 그들이 必要로 하는 投資材, 化學製品 등을 西獨으로부터 輸入하여 東獨의 工業化 및 經濟開發을 促進한다는 이로운 點이 있었다.

結局 東·西獨의 交流는 「占領 4 大國의 베를린 管理」라는 條件 때문에 西方 3 個國이 西獨-베를린間의 通路를 열은 것을 契機로 西獨側이 對東獨 接觸의 擴大를 위해 繼續 努力한데서 오늘날과 같은 兩獨 關係 正常化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南北關係는 東·西獨 關係와는 그 狀況이 다르다. 첫째 38警戒線 附近에 美·蘇가 共同으로 管理해야 할 아무런 特定地域도 없었고, 둘째 6·25의 慘變을 겪고 난 南·北間의 感情은 아주 敵對的이 되었다. 그리고 세째는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 共產徒黨이 世界共產主義 中에서도 가장 惡辣한 集團이기 때문에 도시 協商이나 妥協의 門이 열리지 않는 點이다. 1972年 「7·4 共同聲明」을 내놓았을 때 겉으로는 同族間에 相互誹謗을 中止할 것을 文書化하면서 뒤로는 南侵을 위한 땅굴을 판 아주 奸惡한 共產黨이다. 그후 우리가 「6·23 宣言」을 내놓고 平和的 統一을 위한 門戶開放을 宣言하자, 저들은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止하고 겉으로는 國際政治에서 平和攻勢를 펴고 있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韓半島 赤化野慾의 實現을 위해 狂奔하고 있다.

平壤에 駐在했던 한 西方國家의 外交官이 엿그제 北韓의 實相을 論評했듯이 저들은 지금 우리에게 비해 너무나도 뒤지고 있는 經濟的 脆弱點을 隱蔽하기 위해 우리와의 對話를 中斷하고 繼續 그閉

鎖社會의 門을 열지 않으려는 것이다. 85)

이러한 敵對的인 對峙狀況下에서 우리가 對話의 突破口를 찾는 것은 4強關係의 再調整에서만 可能할 것 같다. 예컨대 우리의 對美·對日 外交가 奏効하여 美國과 日本이 그들의 對北韓 接觸에서 南·北對話를 勸誘·慫恿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우리 스스로가 對蘇·對中共政策을 플렉시블하게 驅使하여 中·蘇가 다같이 韓半島問題에 대해 거의 中立을 지키면서 平和的인 對話를 北韓에게 勸告하지 않는 限 金日成의 對南政策은 旧態依然할 것이 뻔하다.

우리의 對蘇·對中共政策 改善에 대해서는 外務部의 實務者들이 積極 研究하겠지만, 筆者의 所見으로는 우리의 對自由中國關係의 再檢討가 對中共 關係改善을 위한 先行條件이며, 對蘇 接近은 그들과의 經濟協力(蘇聯의 漁業政策이나 開發事業 등)을 통해 可能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4強關係의 再調整이 奏効하여 南·北對話가 再開되었다고 前提할 때 우리의 對北接觸 및 協商은 「赤十字社」나 「南·北調節委」가 맡는다 하더라도 이를 各界 分野의 專門的 研究家가 幅넓게 뒷받침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民族分斷의 平和的 解決策으로서 끈기있는 對話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段階的으로 諸關係를 規制해 나가되 分斷의 長期的 超克策

註: 85) 1978年 1月10日字의 朝鮮日報.

으로써 世界人의 支持를 받은 西獨의 先例(即 獨逸方式)를 뒤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長期的이며 平和的인 妥結方法으로 우리 統一政策의 方向이 定해진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国力培養이 先行되어야 한다. 即 繼統的인 經濟發展과 아울러 自主國防力 強化가 時急하지만 이와 並行해서 實行해야할 重大事가 있다. 即 밖으로는 友邦外交만이 아니고 對中立國 및 對共產圈까지도 우리의 外交網을 넓혀 國際政治에서 孤立하지 말아야 하며, 또 안으로는 庶政刷新 및 勞使의 衡平政策을 잘 驅使하여 國民全體가 內心으로 總和되어 民族中興의 轉換期的 大課業을 履修해 나가야 한다.

参 考 文 献

- 1) Deutsche Geschichte in Daten (Herausgegeben vom Institut für Geschichte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Berlin/1969, 1101 S.
(詳述 独逸史)
- 2) Dill, Marshall Jr. : Germany : A Modern History, Michigan Univ. Press/1961.
- 3) Hubatsch, Walter : Deutsche Frage, Würzburg/1964.
(独逸問題)
- 4) Kupper, Siegfried : Der innerdeutsche Handel, Köln/1972.
(内独交易)
- 5) Lehmann, H. : "England und die deutsche Teilung," in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Göttingen /1963. (英国과 独逸의 分割)
- 6) Mahncke, D. : Berlin im geteilten Deutschland, München /1973. (分断 独逸속의 베를린)
- 7) Reichelt, P.u.a. : Deutsche Chronik 1945 bis 1970, 2 Bde., Bonn/1971 (1945 ~ 1970 의 東·西 独 年代記)
- 8) Riklin, A. : Das Berlinproblem, Köln/1964.
(베를린問題)
- 9) S.B.Z. von A - Z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 Bonn/1966(10)

(蘇聯軍 占領地帶 A - Z)

10) S.B.Z.von 1955 ~ 1958(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
Bonn/1961

(1955 ~ 58 年間の 蘇聯軍 占領地帶)

11) Siegler, H. :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1968, 2 Bde.

(再統一과 獨逸의 安保)

12) Sontheimer/Bleek : Die DDR, Hamburg/1972 (東獨)

13) Thedieck, F. : "Das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in Bayerische Verwaltungsblätter,
Heft 11/1961, S.325 ~ 329 (全獨省에 관하여)

14) Die Welt vom 27. Januar 1967 (1967.1.27 日字의 Die Welt 紙)

15) 朝鮮日報 1978年1月10日字

16) [統一問題研究], 第2輯 " 獨逸編 " (外交研究院), 서울/1967.

17) [東·西獨資料集](中央情報部), 第2卷 (接觸關係 下), 서울/1972.

3 段階로 다음과같이 說明하고 있다.

第1 段階: 財貨는 市場을 通해서 分配되지만 生産은 計劃에 依해서 管理된다.

第2 段階: 既存設備에 依한 財貨의 生産은 市場을 通해서 나타나는 消費者選好에 依하여 決定되지만, 消費財의 總量 生産에 投入되는 資源(資本財包含)의 總量 그리고 投資費탄은 모두 計劃에 依해서 統制된다.

第3 段階: 消費財生産工場의 現生産高와 投資費탄은 最終生産物에 對한 消費者需要에 立脚해서 定해지되, 生産되는 消費財의 總量과 總投資는 國家圈에 留保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點은 드류노스키가 말하는 「國家의 選好 或은 支配」라는 것이 決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投票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事實 그도 指摘했듯이 그의 段階区分은 Arrow의 社會的選択(Social Choice)의 分類와 一見 같은 것 같다. (註)

그러나 Arrow는 政治的決定이 投票에 依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 라는 點에서 Drewnowski의 國家의 概念과 根本的으로 相異한 것이다. 後者は 政治的決定이 全혀(投票가 아님) 다른 方式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는 또한 그 全혀 다른 政治的決定의 方式이

註) K. J.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John Wiley & Sons, 1951.

非經濟學的問題로서 그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添言하고 있다.

이와같은 그의 添言은 國家支配圈에서 出發한 即 共產圈에서 經濟改革이 아무리 進行되더라도 그 國家가 投票에 依해서 支配되지 않는 限 經濟運營方式의 變化 即 經濟改革이 政治體制를 變化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逆說적으로 表現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포란드가 經濟改革에 있어서 實驗을 先行시키는 것이 바로 그와같은 政治體制가 받을 影響을 事前에 確認하고 施行하려는 교활性인지 아니면, 그와같은 影響이 너무 強烈하여 그 反作用으로 政治가 보다 強硬한 體制로 復歸시키는 것을 念慮하는 經濟政策立案者의 慎重性의 發露인지는 分明치 않다.

그런데 이 市場메카니즘의 利用段階의 區分에 비추어 볼때 東歐各國의 經濟改革은 헝가리, 체코以外에는 아직 그 第1段階에로 進入하지 않은 一種의 準備段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 헝가리는 東歐圈中에서 가장 先進的經濟體質을 가진 나라이다.

第1段階에서 保障하여야 할 消費財의 市場을 통한 分配는 價格메카니즘의 復活 即 市場勢에 따라 伸縮的인 價格이 前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供給不足品目的 價格騰貴와 消費者嗜好에 맞지 않는 品目的 價格下落을 結果하여, 자칫하면 그들의 經濟的脆弱點이 露出될 可能性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볼때 Drewnowski의 3段階는 先進的經濟體質(工業供給能力이 需要를 充足시킬수 있는 狀態)이 到達된 後의 推進道標가 되는 것이며 이들 2個國을 除外하고 餘他の 東歐各國은 소聯과

포란드를 包含하여, 第 1 段階進入에 先行하여 生産面의 基盤을 다지는 準備過程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第 1 段階 即「財貨의 消費는 市場을 通해서, 生産은 計劃에 의해서」라는 말 가운데 財貨가 「모든」財貨라는 意味라면 그것은 곧 一切의 配給制가 撤廢된다는 것을 意味하는데, 一時에 그와같은 段階에 들어서면 그들의 政治的 組織力의 根源이 흔들리는 結果가 되어 註> 그後の 第 2 第 3 의 段階로의 進行은 다만 時間의 問題가 될 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圖 8 > Drownewski 의 二重選好体系圖

個人支配圈 (個人選好가支配的인領域)	二重支配圈			國家支配圈 (國家選好가支配的인領域)
	(第 3 段階)	(第 2 段階)	(第 1 段階)	
消費財生産總量 總投資	消費財生産總量 投資配 資源總量	全生産	(國家計劃統制)	
消費財의 現生産 高 投資配	現存設備에 依한 生産	分 配	(市場메카니즘에맡음)	

註> 配給制가 그들의 組織力의 根源이라는 것은 그에 依해서 居住의 移動 旅行과 職場의 指定權이 確保될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